

문 대통령 전국 경제투어

1 2018년 10월 30일 — 재생에너지 사업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부지 방문  <p>“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p>	2 2018년 11월 8일 — 철강기술 경북 포항 포스텍 4세대방사광가속기 연구소 방문  <p>“포항, 철강산업 중심지이자 한반도-극동-일본 연결하는 환동해 물류도시로 발돋움”</p>	3 2018년 12월 13일 — 제조혁신 경남 창원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 참석  <p>“제조업 혁신이 일어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가 살아난다”</p>	4 2019년 1월 17일 — 수소경제 경남 울산 '수소경제 활성화 보고회' 참석  <p>“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 그 중심에 울산이 있다”</p>
--	--	---	--

군·포·창·울... 경제난 해안벨트 두드리는 '文 혁신투어'

(군산·포항·창원·울산)

지난해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 "성장 지속에 필요한 것은 '혁신' 혁신으로 산업부흥·신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외치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남 울산 등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등 경제위기 지역에 활력 불어넣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17일 새해 첫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4번째 지역경제 투어다. 문 대통령은 울산에서 '수소경제'와 연관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 때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면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은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울산에서 수소경제 혁신성장을 외친 이유는 울산에 수소경제의 기반이 되는 1000여 기업과 연구계가 조성됐고, 수소 생산 및 저장에 특화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찾은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도 각 지역에 맞는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1차 지



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 활용 모델리티(수소차, 드론 등) 부스에서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으로 부터 수소를 이용한 드론에 관해 설명 듣고 있다. ②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③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능하는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8일 2차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스텍 4세대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포스텍과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역량이 포항 철강-구미 전자-대구 의료와 만나 탄탄한 스마트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포항은 철강산업 중심지이자 한반도-극동-일본 연결하는 환동해 물류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3차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 육성 등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

언에서도 이 같은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수소경제 '성큼'... 수소차 3000만원 시대

(2025년)

현대자동차그룹, 수소차 사업 탄력 '넥쏘' 글로벌 판매 목표 6000여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전기차(FCEV)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17일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력을 가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의 리딩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차 개발 역사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연료전지 개발을 본격화한 현대자동차그룹은 같은 해 11월 신타페를 모델로 연료전기차를 처음 선보였다.

2004년 미국 전역에서 투싼 연료전기차

32대를 운행했고, 2008년에는 투싼 연료전기차 2대와 스포티지 연료전기차 1대 등 자체 개발한 차량으로 미 대륙 동서 횡단에 성공했다.

2013년 초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양산 체제를 갖추고 투싼ix 수소차를 상용화했지만, 높은 차량 가격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차세대 수소차인 넥쏘를 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넥쏘는 609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고효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통한 짧은 충전시간, 높은 수소탱크 안정성, 기술력이 집약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 6890만~7220만원이지만, 작년 기준 최대 3500만원의 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면 3390만~3720만원으로 낮아진다.

넥쏘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949대가 판매됐다. 내수는 727대, 수출은 220대로 주요 수출시장은 유럽과 북미 지역이다. 현대차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넥쏘의 글로벌 판매 목표를 6000여대로 잡았다.

업계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5년 수소차 10만대 양산체제가 갖춰진다면 수소승용차 가격이 현재의 반값인 3000만원대로 낮아지는 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조금은 현재 하이브리드차 정책처럼 수소차 및 수소 충전가격 하락에 맞춰 단계적으로 줄다가 10만대 양산 시점에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0년 국내에서 연간 50만대 규모(승용·상용)의 수소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약 124곳의

주요 부품 협력사와 2030년까지 연구·개발(R&D)과 설비 확대에 모두 7조60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해 현대모비스 충북 충주 공장에 제2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연간 3000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을 2022년

까지 4만대로 확대해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인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작년 12월 열린 충주 제2공장 신축 기공식에서 "수소차처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과 현대차그룹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글로벌 에너지 변화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